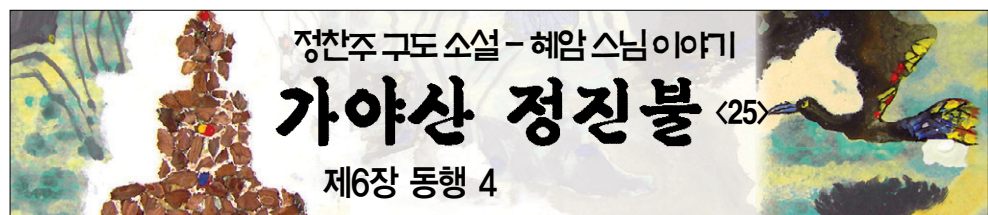


얼마나 많은 '욕심의 나뭇잎' 들을 달고 살았던가



염불암 가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산길은 풀숲과 산죽 사이로 험미하게 나 있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는 증거였다. 대연거사는 산길 초입을 좁지나서부터 땀을 흘렸다. 앞서가던 현각거사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좀 쉬었다 가지요.”
대연거사는 넘어져 있는 잣나무 고풍 등걸에 앉았다. 잣나무 고풍은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나이 들어 골다공증을 앓다가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대연거사는 문득 허리가 잔뜩 구부러진 원당암의 노파를 떠올렸다. 그 노파는 현각거사의 어머니임이 분명했다.

“현각거사님, 원당암 공양간에 계신 분과 어떻게 되십니까?”

“그분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해암 큰스님 속가 여동생이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20년도 넘게 원당암 공양간 일을 보고 있습니다.”

“원당암 원주스님께서 매일 법당 부처님께 밥을 올리는 마지보살님이라고 부르더군요.”

현각거사가 속스럽게 웃었다.

“어머니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는 큰스님이 참 인간적으로 정이 많은 분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현각이 원당암에 살고 있을 때였다. 속가에 있는 어머니가 별세했다는 전보가 왔다. 현각은 황망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일단 해암스님에게 보고하고 나서 고향으로 가려 했다. 현각은 해암스님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다. 현각에게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우주와 같은 존재였다. 어머니는 시집을 갔으나 아버지가 분처를 두고 있었으므로 잠깐 살다가 친정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후부터 현각의 가족 관계는 어머니와 외갓집으로 국한돼 버렸던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은 현각에게 우주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큰스님께서 오고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것을 얘기해주시더군요. 우는 저를 보고는 어쩔 것이냐고 다독거리시는데 혈육의 정 같은 것을 느꼈지요. 큰스님께서도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정은 차별했습니다. 제삿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꼭 해인사 용탑전으로 가서서 재를 지냈었습니까요.”

대연거사는 현각거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속가 조카인 현각에게 “어쩔 것이냐”고 위로하던 해암스님의 자상한 모습도 상상이었다. 갑자기 현각거사가 배낭에서 책을 한 권 꺼내 권했다.

“염불암에서 대해서 어떤 작가가 쓴 글인데 좀 읽어오. 한 번 읽어보시지요.”

대연거사는 땀도 들일 겸 넘어진 고풍에 앉아서 책을 넘겼다. 책은 염불암 사진과 함께 편집돼 있어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절은 벌써 가을로 가 있었다.

낙엽이 뿌리돌아가는 계절이다. 나도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있다. 생각 끝에 찾아온 곳이 강원도 오대산이다. 오대산에는 산 이름 그대로 오대가 있다.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가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나는 지금 서대 염불암으로 가는 산길을 걷고 있다.

물론 오대산에는 월정사, 상원사라는 큰 절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왔다 간다. 기념사진 찍고 단풍 구경하고 낯선 절간을 기웃거리다가 쓰레기를 남기고 떠나간다. 하긴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라도 가벼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세상 밖으로 소풍 나와서 웃고 울고 떠들다가 추억을 몇 장 남기고 사라지는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대는 공간에서 벗어나보라.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왜 힘들어져 있는지 보이기 시작한다.

구불구불한 산길은 잃어버린 땀줄을 연상시킨다. 태어나기 전에는 생명줄이었지만 탄생 이후는 질라 버리는 것이 땀줄이다. 모태로부터 분리된 아픔과 외로움이 어찌 저 깊은 기억의 밑바닥에 남아 있지 않을까.

산길을 걷다보면 심연의 고풍이 산죽의 이파리처럼 살갗을 찌를 듯 다가온다. 언젠가 달빛이 없던 산죽을 본 적이 있다. 산죽은 무서리처럼 차갑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 정경이 생생하다. 우리의 식도 그렇게 빛을 내며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낙엽을 떨구고 있는 나무들이 길 떠나는 수행자 같다. 나도 무언가를 미련 없이 떨구고 싶다. 돌이켜

보면 얼마나 많은 욕심의 나뭇잎들을 달고 살았던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술만이 아니다. 욕심에도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알코올 성분이 있다. 감성과 이성, 주의와 사상, 통념과 관념 등도 집착하면 사람을 취하게 한다. 도취하면 마음은 닫혀지고 지혜는 멀어진다. 그러나 가을 산길에서는 자신의 헛된 나뭇잎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간다. 찬물을 들이 권 듯 자아도취와 마취 상태에서 차츰 깨어난다. 한 계단 한 계단 뛰어 간다는 점수(漸修)란 이런 경계일 것이다. 깨달음이란 의미가 깨어남과 동의어란 생각이 든다.

차가운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린다. 소리들은 소쇄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지켜야 할 제자리에 서 무심히 소리 낼 뿐 지사한 인간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지 않는다. 화합을 내세운 적이 없지만 화합하는 자연의 선율이 마음이 흥만해진다. 일찍이 나옹선사는 서대보다 높은 곳에 있는 북대 미륵암에서 살았다. 선사가 지어 부른 노래는 <토굴가>였다. 두런거리 보면 선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짐작이 간다.

서대 염불암 입구에는 우통수(于筒水)라는 정겨운 샘이 있다. 이 샘의 한 방울이 흘러넘쳐 도도한 남한강이 된다. 그러나 이 샘물을 한 모금 마신다면 한강 물을 들이켜는 것과 다름없다. 나도 한 입에 한강 물을 삼킨다. 가파른 산길에서 땀을 흘린 자만이 마시는 축복의 물이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법이다. 우통수에서 다시 힘을 얻는다.

마침내 나는 서대 염불암 마당에 선다. 작년에 왔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너와집 암자이다. 투명한 햇살을 받아 빛나는 등산복 앞에 선 느낌이다. 누구라도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있는 너와집 암자 뜰에 서 보라. 무수구가 무언지 스스로 깨달아라. 나옹스님이 환생한 듯 <토굴가>가 절절하게 들려올지 모른다. 욕망과 성냄의 집을 얼마나 무겁게 지고 사는지 절로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폭폭 솟았던 '나 안의 나' 가 보이게 될 터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머리가 무거워진다. 나로 인하여 산짐승의 발길이 잦았던 서대 염불암이 사람 때로

머리를 쿵쿵 찡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개울가로 나 가 얼음을 입에 물고 용맹 정진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그런가 하면 망상과 졸음으로 화두를 곧잘 놓치고는, 그런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장경각 뒷산으로 올라가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한다. 구참 수좌들 앞에서는 차마 울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자책하고 분심을 내어 울었던 것이다. 가야산에 쏟아지는 소나기를 흠뻑 맞으며 우는 날도 있었고, 뼈구기가 뼈뚫뚫 청성맞게 우는 날 뼈구기와 함께 울고 산을 내려온 날도 있었

다고 한다.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면 전생부터 쌓인 두터운 업장이 씻겨 내리는 느낌이 들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한 동안 화두가 역력하게 들릴 때도 있었다고 한다.

사람문을 지나자, 과연 책에 소개한 대로 조그만 샘이 보였다. 샘 옆에는 '우통수'라는 나무 표지판이 꽂혀 있었다. 이 샘이 남한강의 발원지라고 하니 성지에 온 듯도 했다.

“현각거사님, 방거사가 마조선사에게 ‘일체의 존재와 상관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묻자, 마조선사가 ‘서경의 물을 한입에 다 마시고 오면 말해주겠다’ 고 했는데, 거사님은 제가 남한강의 발원지인 이 샘물을 마신다면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하하하.”

“한 마디 할 수 있는 득력을 얻을 때까지 화두를 들고 있었습니까?”

대연거사는 장난스러웠고 현각거사는 진지했다. 그 바람에 대연거사는 말장난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우통수에서 암자까지는 스무 걸음밖에 되지 않았다. 그때 마침 암자에서 한 스님이 큰 냄비를 들고 우통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스님이 두 사람을 보더니 말했다.

“점심공양을 했습니까?”

“점심때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잘 됐네요. 아침에 삶아 놓은 국수가 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에게 암자에 먼저 가 있으라면서 주의를 주었다.

“앉을 때 조심하시오. 여긴 긴 놈들이 많아요.”

“긴 놈이라뇨.”

“습해서 그런지 긴 놈들이 많습니다. 긴 놈들이 산과 암자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 때나 돌아다니지요.”

“아, 뱀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림 · 최문정

속으로 '이보다 더 간소한 식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스님이 작년 겨울에 담갔다는 배추김치 한 사발과 국수 세 그릇이 전부였다. '해암 큰스님도 이곳에서 이 스님처럼 살았으리라.' 국수를 단숨에 넘기고 나서 그런 스님에 잠겨 있는데, 스님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정진하려는 듯 작별하자고 눈인사를 했다. "아쉽습니다. 며칠 전에 오셨어도 하얗게 만개한 별꽃을 보셨을 텐데." <계속>

“저야 뭐 같이 삽니다. 어제도 아궁이에 불을 때려 고 하는데 긴 놈이 나와서 마당 밖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현각거사가 우통수에서 물을 떠온 스님에게 합장했다. 대연거사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들이 찾아와 수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많이 오면 그렇지만 한두 분은 괜찮습니다.”
삶은 국수를 우통수 샘물에 타는 것으로 국수 세 그릇이 눈 깜짝할 동안에 만들어졌다. 대연거사는

해암 스님의 어머니에 대한 정 각별 매년 반드시 해인사 용탑에서 재지내

몸살을 앓지는 않았는지 걱정된다. 무례한 집인(家人)의 발걸음이 두렵다.

대연거사는 글을 다 읽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땀줄 같은 산길 때문에 현각거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한 듯도 했다. 아무튼 글쓴이는 무례한 집인의 발걸음을 경계했는데, 허락받지 않고 찾아가는 자신의 방문이 엄지없이 느껴졌다. 그래도 현각거사는 염불암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 가볍게 골짜기를 건넜다.

골짜기를 건너 다음 산등성이를 향해 오르자, 하늘이 손바닥 만하게 보였다. 집인의 출입을 경고하듯 사람문도 나타났다. 사람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현각거사가 사람문을 바로 세우고는 말했다.

“정진 중이라면 닫혀 있을 겁니다. 열려져 있어 다 행입니다. 큰스님은 이 암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일타 큰스님과 함께 살았다고도 합니다.”

“지족암에 사셨던 큰스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스님과는 도반이었지요. 탁마도 하고 때로는 분심을 일으키는 경쟁 관계였지요. 그런 사이라면 지금 중정스님이신 법전 큰스님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세 분이 탁마도 하고 분심을 일으키게 하는 도반이었다는 말씀이군요.”

“해인사의 어떤 스님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더군요.”

분심(憤心)이란 내 자신이 부처인데 증생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하는 마음을 뜻했다. 경봉선사도 해인사 퇴설당의 안거 동안에 분심을 내어 ‘예전 성현들도 대장부요, 나도 대장부인데 나는 과거 몇 만 겁 동안 내 마음을 깨치지 못하고 생사 윤회하여 온갖 고통을 받아왔구나!’ 하고 퇴설당 기둥에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총재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년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돌 아닌 돌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행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음 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함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앙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함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